

“내고향 발전시킬 일꾼 뽑자”... 유권자들 한표

NEWS

2025년 4월 3일 목요일

담양군수 재선거 투표 현장 가보니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연령층 투표소로 발길 지팡이 짚거나 가족 부축 받는 어르신도 다수

“내고향 담양군을 위해 앞장설 일꾼인데 내 손으로 뽑아야제.”

사전투표율 37.92%를 기록하며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인 4·2 담양군수 재선거 본투표일인 2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특히 담양군수 재선거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재종 민주당 후보와 3선 군의원으로서 군의회 의장을 지낸 정철원 후보가 맞붙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담양군 담양읍 담양동초등학교에 마련된 제4투표소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투표장을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이 하나둘씩 모여 들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부터 30~40대 직장인, 60대 농부 부부, 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 등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다.

지팡이를 짚거나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를 방문한 어르신 유권자들도 적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하지만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투표소를 찾은 것이다.

투표소가 초등학교에 위치해 자녀를 등교시키고 투표에 나선 학부모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투표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입장한 유권자들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투표 후 일부 군민들은 투표소를 배경으로 함께 투표를 하러 온 지인과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고 발걸음 돌리는 유권자들은 정당을 떠나 지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길 간절히 바랐다.

담양에서 타고 자란 차경주씨(87)는 오토바이를 타고 10여분 거리에 있는 투표소를 찾았다.

차씨는 “내고향 담양을 위해 힘쓸 일꾼을 찾는데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한 게 무슨 대수냐”며 “1년여 임기지만 누가 당선되든 지역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으로 귀화한 이들도 담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한 사람이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 표를 행사했다.



4·2재보궐선거 투표일인 2일 전남 담양군 담양읍 제2투표소가 마련된 담양문화회관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지난 2012년 귀화한 베트남인 김지연씨(38·여)는 “선거 전 남편과 함께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히 훑어 봤다”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담양문화회관에 마련된 담양읍 제2투표소도 유권자들로 북적였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군민들의 발걸음이 지속됐고, 점심

시간에는 인근 직장인들이 모여들어 투표장을 기다리는 행렬이 생기기도 했다.

투표소를 잘못 찾은 일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기는 모습도 보였다.

투표소 관계자는 이들에게 관할 지역별 투표소를 안내해주며 유권자별 투표소를 안내했다.

이날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 점심을 먹고 투표소를 찾은 장서환씨(65)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의 차이를 몰랐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왔는데 퇴근 후 안내 받은 투표소를 찾아 늦게 투표할 해야 될 것 같다”고 멋쩍어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 1468곳에서 4·2 재보선 투표가 시작됐다.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부산 교육감과 일부 지역의 광역 및 기초의원

등을 선출한다.

전남지역 4·2 재보궐선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담양 18개, 광양·고흥 각 6개 등 총 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중 경북도의원(성주군)과 전남 담양군의원(담양군과) 선거에서는 각각 정영길 후보(무소속)와 노대현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담양=조성용 기자 jwnews@gwangnam.co.kr

■ 군정 새로 이끌게 된 정철원 담양군수

“전국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 만들겠다”

달빛내륙철도 예타 면제 요청... 군민 삶의 질 높일 터

정철원 담양군수는 “천년 담양의 미래를 위해 ‘더 정직하게, 더 철저하게, 더 원칙있게’ 담양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2일 치러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소감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담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내는 신호탄으로 담양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12명의 명예 지역 구 국회의원과 담양을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범으로 만들어가겠다”며 “담양은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호남정치가 변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건강한 상식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응집된 것이라 사료된다”며 “고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지역정치를 일궈왔던 경험과 경륜, 늘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같은 모습에서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3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제대로 된 경쟁없이 민주당의 독과점

이 유지돼 온 호남정치가 진정한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선명성 경쟁이 더 뚜렷해질 것이고 호남정치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무엇보다도 중단된 군정 공백을 보완하고 전임군수의 공약을 잘 마무리하는 게 당선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다”면서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뜻과 의견을 우선해서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국혁신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과제를 우선 해결하고 관광-물류-교통의 거점이 될 달빛내륙철도의 조기착공이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당론으로 해결해 낼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며 “선거과정에서 이원된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군수는 “민주당 후보



정철원

의 정책과 공약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다양한 과정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짧은 임기 때문에 공약을 다 이행할 수는 없지만 ‘천년담양’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청사진을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4·2 담양군수 재선거 최종 투표율 61.8%

광양 다선거구 15.5%·고흥 나 선거구 63.8% 기록

4·2 재보궐 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투표율이 61.8%로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자료에 따르면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전체 4만394명 유권자 중 2만4969명이 투표해 61.8%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28~29일 이뤄진 사전투표(담양 37.92%)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63.8%)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날 치러진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등 전체 5곳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시·군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광양(다 선거구)은 15.5%, 고흥(나 선거구)은 63.8%를 기록해 차이가 컸다.

담양군의원 선거에는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4·2 재보궐선거의 전국 최종 투표율은 27.55%로 집계됐다. 이날 8시 현재 최종 투표율은 부산 교육감 선거 22.8%,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37.8%, 시·도의원 선거 26.8%, 시군구 의원 선거 22.8%를 기록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